

나노실리카 · 에어로겔 상용화 추진

마스터테크론, 상용화 기술 확보 ... 2006년말 6000톤 설비 건설

전자부품기업 마스타테크론은 나노실리카·에어로겔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2006년말까지 80억원을 투자해 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양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7월3일 발표했다.

나노실리카는 나노미터(nm) 크기인 초미세 실리카 분말로 연마제 등에, 에어로겔은 공기분자가 전체 부피의 98%를 차지하는 첨단 신소재로 단열재 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공정이 어렵고 원가가 높아 현재는 100% 수입되고 있다.

마스터테크론 관계자는 “저렴한 원료(물유리)를 사용한 고효율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기존 수입 제품의 3.3-40% 수준인 나노실리카(톤당 300만원 이하)와 에어로겔(kg당 5000-2만원)로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어로겔로 대체될 수 있는 단열재 시장은 연간 4조원, 나노실리카 시장은 600억원에 이른다”며 “2008년말까지 대규모 설비투자를 완료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05>